금융감독원	보 도 자 료	금융투자협회 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

보도	2024. 1. 19. (금) 조간	배포	2024. 1. 18. (목)

담당 부서	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	책임자	국 장	서재완	(02-3145-7580)
		담당자	팀 장	박재영	(02-3145-7590)
	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	책임자	본부장	이봉헌	(02-2003-9014)
		담당자	부 장	김영규	(02-2003-9370)
	금융투자협회 증권2부	책임자	본부장	천성대	(02-2003-9013)
		담당자	부 장	정수섭	(02-2003-9110)

이자율 산정방식 개편 및 비교공시 개선을 통해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체계를 보다 합리화 하겠습니다.

-「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」개정 -

주요 내용

◈ '23. 3월부터 운영된 T/F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체계를 다음과 같이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.

① 신용융자 이자율 기준금리를 증권사 조달금리와 상관관계가 높은 CD금리로 통일시키고,

② CD금리(기준금리)가 일정폭 이상 변동할 때마다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 변경 심사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.

③ 투자자 편의 제고를 위해 투자자가 부담할 상세 이자비용 안내 등 이자율 공시의 조건검색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.

◈ 금투협회는 제도개선을 위해 '24. 2월중 모범규준(안)을 사전예고하고 3월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,

○ 금감원은 제도 개편 이후에도 신용융자 이자율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, 앞으로도 합리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.

Ⅰ. 모범규준 개정배경

□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이 시장금리 변동 추세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됨에 따라,

○ 금감원은 '23. 3월부터 금투협회 및 증권사와 「신용융자 이자율 부과관행 개선 T/F」를 구성·운영하여

○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·적용현황을 분석하고 이자율 산정방식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.

Ⅱ. 모범규준 개정 주요내용

1 기준금리를 CD금리로 통일하여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겠습니다.

□ (현황) 현행 모범규준상 증권사는 자율적으로 실조달금리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지표를 기준금리로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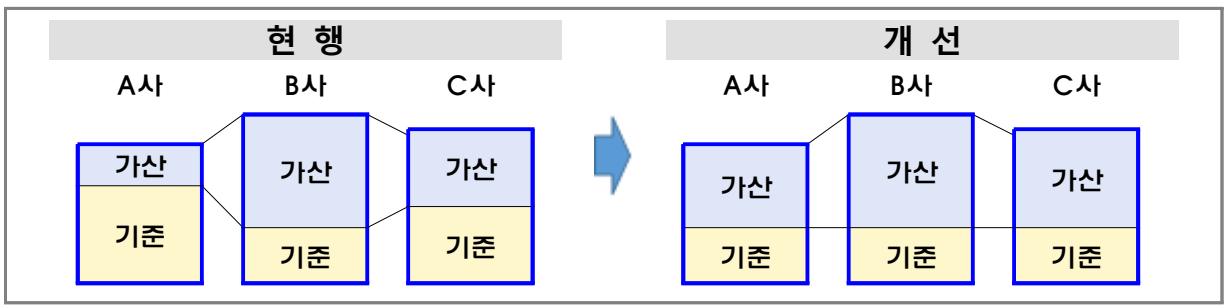
○ 회사채, 금융채 등을 기준금리로 정한 증권사는 CD금리 적용 증권사 대비 이자율 산정시 리스크프리미엄*이 크게 발생하는 등,

* 기준금리와 조달금리간 차이로, 리스크프리미엄이 작을수록 실조달금리를 적절하게 반영

○ 기준금리가 실조달금리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.

□ (개선) 신용재원은 현행과 같이 자율적으로 조달하되 상당수 증권사가 CD금리에 연동된 증권금융의 유통금융을 활용하는 점을 고려하여

○ 신용융자 이자율 공시 기준금리를 CD금리로 통일하여 가산금리만으로 쉽게 최종 이자율 차이가 비교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.



2 이자율 변경심사를 CD금리 변동폭에 연동하여 실시합니다.

□ **(현황)** 현행 **모범규준**은 **기준금리 및 가산금리 세부항목**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**재산정**하도록 정하고 있으나,

○ 증권사들은 다소 **형식적으로 이행**하는 측면이 있어 시장상황에 따른 **시장금리 등**의 **변동이 반영**되도록 한 **모범규준 취지**가 제대로 **실현되지 못하고** 있습니다.

* T/F 분석 대상기간인 '20.10월~'23.6월의 기간 중 이자율 변경횟수는 회사에 따라 최소 1회에서 최대 8회까지 제각각으로, 시장금리 변동을 반영하는 민감도가 불균일

□ **(개선)** CD금리가 **일정폭**(25bp) **이상 변동**시 **이자율 변경심사**를 실시*하여 **시장금리**가 **이자율**에 **적시 반영**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* 이를 적용시 같은 기간('20. 10월~'23. 6월) 중 6차례 이상 이자율 변경심사 필요

3 비교공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투자자 선택권을 강화하겠습니다.

□ **(현황)** **현행** 신용융자 이자율 **비교공시**는 **증권사별 이자율**의 **단순열거**에 그치고 있어 **정보 전달력**과 **가독성**이 **미흡**합니다.

□ **(개선)** **조건검색** 기능을 추가하여 투자자의 **융자액** 및 **융자기간 선택**에 따라 투자자의 실부담 **이자비용**이 **계산**되도록 **개선**하고

○ **비용부담**이 **적은 증권사 순**으로 계산결과를 **정렬**시켜 **투자자**에게 **유리한 증권사**가 **'한눈에' 식별**되게끔 **개선**하겠습니다.

현 행

(%)

회사	1~7일	8~15일	16~30일	31~60일
A사	6.5	7.5	8.0	8.5
B사	4.4	6.5	7.5	8.5
C사	6.0	7.75	8.25	8.75
⋮				

추 가

개 선

융자금액 [ ] 원 (예시) 100만원, 1,000만원, 1억원

융자기간 [ ] 일 (예시) 7일, 15일, 30일

☞ **검색결과** (낮은 순 정렬)

B사	8,430 원
C사	11,500
A사	12,500

Ⅲ. 기대 효과

□ 모범규준 개정 이후 증권사는 **시장금리 변동추세**를 **감안**하여 **신용융자 이자율**을 **산정**하게 되고,

○ 비교공시 기반 **투자자**의 **이자율 비교·선택권**이 **강화**됨에 따라

○ 향후 **증권사간 건전한 경쟁**이 **촉진**되고 이를 통해 **신용융자 이자율**이 **보다 합리적**으로 **산정**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Ⅳ. 향후 계획

□ **금투협회**는 **'24. 2월중 모범규준**(안)을 **사전예고**하고 **3월중 개정**을 **완료**할 **예정**이며,

○ **신용융자 이자율 비교공시** 강화는 **금투협회 공시화면 개발**을 거쳐 **'24. 3월중 시행**될 **계획**입니다.

□ **금감원**은 **모범규준 개정** 이후 증권사의 **내규·약관 반영** 여부, **신용융자 이자율 산정 현황**을 **모니터링**함으로써, **합리적**으로 **신용융자 이자율**이 **산정**되도록 지속 **점검**할 **예정**입니다.

◆ 투자자 유의사항

① **투자자**는 본인의 **위험 감내능력** 등을 **감안**하여 **과도한 레버리지 투자**가 되지 않도록 **관리**하여야 합니다.

② 투자자는 거래 증권사의 **신용거래 설명서** 및 **약관**을 **꼼꼼히 확인하세요.**

③ **담보 부족시** 추가 담보를 조달할 수 있는 **자금원**을 **확인**하세요

○ 납입 요구시 통상 다음 영업일까지 현금 등으로 담보를 납입하셔야 하고, 미납시 반대매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